

2010 새해에는

김용복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유통마진 줄여 농업인에 이익 환원”

“농업인이 농산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김용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20일 “농산물 유통마진을 줄여 농업인에게 높은 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농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 경영 목표를 ‘변화와 혁신’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김 본부장은 “산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작목반을 개편해 공동생산·전속출하·공동계



농가의 소득안정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은행 사업, 면세유 공급, 맞춤형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 공급,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지역 유가안정에 기여한 농협 풀 유통유를 지속적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농협전남본부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사업의 골자는 모국방문, 다문화여성대학, 친정어머니 맺기, 이

공동생산·출하로 유통구조 개선

농축산물 대량 판매처에 공급

산을 의무화하는 공선출하회(共選出荷會)를 육성·발전시키겠다”며 “공선출하회를 거쳐 출하된 농산물을 시·군 단위 연합사업단에서 대량 판매처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조3천850억원을 기록한 농축산물 판매액을 올해 2조5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살의 품질향상과 판로 확대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미국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와 미질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전남살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살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다”며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미질평가 등 품질 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운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지리산 순한 한우, ‘녹색 한우’, ‘해두부포크’ 등 전남지역 광역 축산물 브랜드의 품질·위생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축산

쌀 소비촉진 캠페인 지속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 차질없이 진행

주여성 농업인 영농후견인 사업 등의 확충이다. 김 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섬주인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은 농협이 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대신, 지자체가 농업의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본부장은 “원칙이 준수되는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농협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을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 삼성증권 FH 광주중앙지점은 20일 오후 금남로 3가 삼성화재 교육장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2010년 새해맞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93개 지점에서 동시에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올해의 시장 전망과 글로벌 투자전략, 상품 투자 전략 등에 대해 강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소금융’을 100개 설립

설 성수품 가격 공개

2천억 이상 대출... 탈북자·다문화 가정 등 지원

aT 홈페이지 통해 동향 제공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지점이 올해 100개가량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신장 상인과 탈북자,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출이 추진되고 지원 방식도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올해 미소금융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월 말에 25개 지점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연말까지 미소금융 중앙재단 지점을 70개 설립한다. 이와 별도로 은행과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20~30개의 지점을

세울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올해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2천228억원을 갖고, 미소금융 사업에 2천178억원, 소액보 가장,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출이 추진되고 지원 방식도 다양해진다. 대출금 상환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미소금융 지점 뿐 아니라 기존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단체가 상인과 탈북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소금융 대출 기준의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산물유통공사(aT)는 설을 맞아 홈페이지(www.kamis.co.kr)를 통해 설 차례상 음식의 의미와 구성, 구매 적기(適期), 설 성수품 가격정보 등을 제공한다. 설 당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4일 전 등 5차례에 걸쳐 성수품 가격 동향과 등락을 조사해 제공한다. 또 설 차례상 구성 음식, 설 성수품 구매 적기, 설 차례상 비용 등의 정보도 공개한다. aT 관계자는 “올해는 이파리를 먹는 채소와 축산물, 과일류가 작년보다 가격이 높아 지난해(22만2천원)대형 유통업체 기준)보다 상차림 비용이 더 비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銀, 투자자보호 최우수 펀드판매사

한국투자보호재단 평가대상 31곳 중 1위

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등 5곳 최우수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0일 “한국투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제3차 펀드판매회사 평가에서 총 31개 펀드판매 평가대상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최우수 등급 펀드판매사로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평가 결과에 대해 “펀드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상

담 전 직원에 대한 영업점 현장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펀드의 불안정 판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펀드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은행 12개사, 증권회사 19개 등 모두 31개 회사를 대상으로 펀드상품 불안정 판매 모니터링을 비롯해 판매 집중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한편, 조사 대상 펀드판매사 중 펀드 판매를 상대적으로 못해 ‘보통’ 등급을 받은 판매사에는 교보증권,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신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외환은행, SC제일은행, SK증권 등 11개사가 포함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예금↓대출↑

11월중 광주·전남 금융권

지난해 11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줄고,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1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수신은 3천169억원이 감소해 전달의 188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여신은 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늘면서 3천709억원 늘어나 전달의 1천172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1천억원 늘었으나 전달(+2천165억원)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새얼굴

“지역민에 사랑받는 은행 만들 것”

박중섭 국민은행 호남 남본부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중섭(52) KB국

민은행 호남남 영업지원본부장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지향적인 영업으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수익창출이라는 고위업무 영역에 머물지 않고 소외 이웃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본부장은 담양 출신으로 광주,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입사한 뒤 서초중앙지점장, 증권대행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unam Life Insurance (국제보청기).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miling couple and the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It lists three benefits: 1. High quality, 2. Security, 3. Affordable price. The Sunam logo and 'SINCE 1982' are also visibl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small images showing different hearing aid models and their features.